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저녁기도〉 이상순 스테파노, 도원성당
2013년 6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_ 사진설명 6면

† 오늘의 전례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루카 11,1-13 참조)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쓰신 본디 낱말은 ‘아빠’였습니다. 사랑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인간 부모도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살리고자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1독서 창세 18,20-32

제2독서 콜로 2,12-14

복음 루카 11,1-13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

김구노 구노 신부 | 일심재활원 원장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씩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만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하는데 없으시면 후원 좀 해주시죠!” 혹은 “우리 기관에 이게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죠!”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청하는 일이 선뜻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말을 하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 위해서 후원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요, 날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소심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거듭 청합니다. 그냥 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상대로 마치 협상하듯 하느님께 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하느님을 상대로 협상하듯이 청할 수 있었던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느님과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공

명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하게 된 소돔의 의인들을 위해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끝에 친구에게 찾아가 빵을 청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자신과 가족이 배가 고프다고 밤에 찾아가 빵을 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 찾아가 빵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밤길을 걸어와서 피곤하고 허기진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염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빵을 가진 다른 친구를 찾았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더 소신 있게, 더 끈질기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기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기보다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거듭거듭 청하고 또 청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면, 기도의 지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김문**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⑮



천상의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모든 교우들은 한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성사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를 공유합니다.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누리는 이 거룩한 친교를 무엇이라 할까요?

평신도 사도직의 세 가지 목표

문화홍보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지난 호에 살펴본 대로 사도직을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전체의 직무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성화하며 봉사하는 일에 평신도가 다만 참여할 뿐 아니라, 그런 활동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기 책임인 줄로 알고 주역이 되어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제2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5~8). 그 첫째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입니다. “평신도들에게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을 수행할 기회가 무수히 열려 있다. 바로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하는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교령은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말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6). 이웃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것 역시 평신도 사도직의 한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세상을 향하여

평신도 사도직의 둘째 목표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입니다. 교령은 “현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과신한 나머지 현세 사물을 마치 우상으로

섬기며, 그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어 버렸다.”(7)고 진단하면서 “사람들이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는 것이 온 교회의 임무”이며, 특히 평신도들은 목자들의 영성적 도움을 받아 현세 질서의 개선을 추구하며, 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7).

거룩한 의무이자 권리인 자선

평신도 사도직의 셋째 목표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 가운데 특히 자선은 사랑의 생생한 표현이자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교령은 “다른 사람들의 자선 활동을 기뻐하면서도 자선 활동이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자신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지적하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이웃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그렇기에 사랑의 실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리추구와 지배욕에 대해 경고합니다(8). 세상 한 가운데서 복음을 소리 내어 전하고, 우리 사회가 더 복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쓰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평신도는 자기가 주님께 받은 거룩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그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48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스 피싱

김병주 제노 신부 | 대곡본당 보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요즘 한 개그 프로에서 인기 있는 유행어 중의 하나이다. 이 개그 프로그램은 현실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 피싱을 적절한 풍자와 유머로 풀어가며 웃음을 주고 있다. 유머 소재로서 보이스 피싱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가 4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피해액은 4,300억 원 규모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voice(언어, 말)’와 ‘phishing(단말기 조작phreaking과 낚시fishing를 섞은 말)’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낚아 올린다는 것이다. 낚시꾼이 낚시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낚시꾼에게는 유익한 일이겠지만 물고기에게는 생명의 끝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낚시대 대신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할 뿐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축적한 재화를 한 순간에 잃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사람은 언어적 존재이고 누구나 말을 하며 산다. 타인과의 교류 또한 바로 언어로서 이뤄진다. 이 언어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하나는 창조와 생명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와 죽음의 힘이다. 사람은 ‘말’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체험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고 선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단지 좋은 것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재하도록 하시는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하신다. 신앙인들 또한 낚시꾼의 소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다만 이 낚시는 낚인 대상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행복으로 이끈다는 복음적 역설이 숨어 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은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발산되는 모든 ‘언어’로서 세상 사람들을 낚아야 한다. 파괴와 죽음을 안겨주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여주신 창조적 언어, 기쁨과 행복의 언어로서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야 하겠다.

“신앙인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언어로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어떤 언어로 기도하고,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어떤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고, 어떤 언어로 이웃을 만나는지 수시로 반성해야 한다.” (마산교구 이재민 신부, 『말은 시들지 않는다』 중에서) **▶▶▶**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모

나는 네 하느님이다. 나는 네 어려움을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네 하느님인 나는 너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힘겨운 일이 생기면 굳이 그 일을 네가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하느님께서 하실 일”로 생각하고 내 우체통에 넣어 두어라.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해 주겠지만 너는 다음의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인 내가 그 일을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이 해결되는 때는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네 주님인 내가 원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갈 때 교통 체증으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해도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라. 세상에는 신체장애 때문에 전혀 운전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일을 하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실직으로 몇 년간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다 해도 실망하지 마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서 사랑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마음이 무뎠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무 가난해서 하루 스물 네 시간, 일주일 칠일이 너무도 힘겹기만 한 가난한 집의 아낙네를 생각해 보아라.

네 차가 고장 나 아무도 없는 길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걸어가게 되었다면, 그렇게도 간절히 걷기를 원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생각해 보아라.

네 삶이 너무 고달파서 네 운명을 원망하게 되었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네 삶을 어렵게 만드는 태풍의 방향을 네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인생의 작은 배의 키는 네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면 감사해라. 이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도 있다.

나는 네 하느님이다. 또한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너의 친구이다. **골로**

금주의 성인



성 이냐시오(7월 31일)

예수회의 창설자이신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스페인 귀족 가문의 아들로 일찍이 군에 입대하였다가 전쟁 중 부상을 당해 병상에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생애에 관한 서적을 읽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결심하셨다. 성인께서는 기도와 금욕생활 속에 <영성수련>을 저술하시고 1537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교황님께 절대 충성을 서약하는 수도단체로 예수회를 설립하시어 교육사업과 성사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이교도의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면서 분열로 혼란에 빠진 교회를 안으로부터 개혁하셨다. 성인께서는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 교황님으로부터 시성되었으며 피정과 영성수련의 수호성인으로 선언되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바로 이 예수회 출신이시기도 하다.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한국진출 125주년 기념 미사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한국진출 125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7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성김대건기념관에서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시노드 중앙위원회 회의



2012년 10월 28일(일) 폐막한 제2차 교구 시노드 주제에 대한 후속조치와 실행 사항에 관한 시노드 중앙위원회 회의가 7월 18일(목) 오후 3시 교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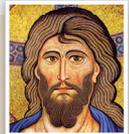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빛>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6월 당선작 선정

- 최우수상 : <저녁기도> 이상순(스테파노, 도원성당)
해가 넘어가는 언덕 위 소나무 옆. 지는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워 당신을 찬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내게 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 우수 상 : <주님께 비추이는 한 줄기 빛> 양대원(프란치스코, 상인성당)
- 장려 상 : <예수님의 평화> 김민수(바오로, 성서성당)

매월 선정되는 당선작은 연말결선을 통해 다시 한 번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앙의 해 폐막미사에 즈음하여 전시하고 화보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출품을 부탁드립니다.



2012
2013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15주(7월 14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성직자, 평신도>입니다.
당첨자 : 김태희(로사, 연일), 허주희(미카엘라, 인동), 김철식(알בל도, 매호), 윤지애(아녜스, 봉덕), 양수산나(수산나, 계산)

칭하여라, 하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8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첫 토요일 신심미사

8월 3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살레시오회 성소 캠프

기간: 8.12(월)~15(목)

대상: 중1~고2, 참가비: 5만 원

문의: (010)3894-1332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무료 숙박)

기간: 8.2(금) 18:00~4(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젊은이 예수 마음 기도 피정

기간: 8.9(금) 17:00~11(일) 15:00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본원(안동)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문의: (010)5517-8833(3만 원)

삼성산 8월 2박 3일 기쁨 대피정

기간: 8.9(금) 18:00~11(일) 15:00

강사: 이재웅(다미아노) 신부

미사: 송광섭(베드로) 신부

문의: 서울대교구소속 삼성산피정의집,

(010)5600-7403(회비: 무료)

젊은이 피정 침묵·기도

기간: 8.10(토) 16:00~11(일) 16:00

장소: 진주 작은자매관상선교회

주제: Open your heart / 선착순 15명

문의: (010)5805-7665

교육 | 모집

향심기도 소개 워크샵

일시: 7.29(월) 10:00~17:00

7.30(화) 10:00~17:00, 본리성당

강사: 이청준 F하비에르 신부(마산교구)

대상: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 / 1만 원

문의: (010)7795-0639(도시락개인준비)

성 베네딕도회 수도생활체험학교

기간: 8.2(금)~4(일), 8.16(금)~18(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성소자, 만32세 미만 미혼 남녀

문의: (010)8353-2323

수도승생활과 함께하는 젊은이기도

기간: 8.9(금)~11(일)

예수기도수행: 8.26(월)~31(토)

장소: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원(고성)

문의: (010)2816-1986

월배 프란치스카눔 수강생 모집

발성마스터클래스

일시: 8.17(토) 18:00

성음악그레고리오(박대중 신부)

일시: 8.16(금) 19:00

문의: (070)4266-0047

어르신 새로 나는 성경 봉사자교육

기간: 8.21(수)~23(금) 13:00~17:00

장소: 바로로팔 서원, 회비: 5만 원

내용: 새로 나는 성경공부 구약편

문의: 425-5185 / (010)7449-1117

장례지도사국가자격 재직계좌제(국비) 일반교육생 모집

개강: 8.30(금)~11.27(수), 무시험

월·수·금 18:30부터 / 일 13:00부터

대상: 학력, 나이, 성별 무관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6~7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120일 철야기도 봉헌

기간: 7.30(화)~11.26(화) 선착순 100명

문의: 작은예수수녀회, (010)8915-5496

제23회 여름음악학교 시편선율 및 전공실기 심화학습

기간: 8.22(목)~24(토)

신청: 7.1(월)~8.10(토)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문의: (051)517-8241

여대생의 뜰 (기숙사)

장소: 서울 성북구청릉국민대 건너편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무관, 속식)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 (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원장 채희갑 (바로로)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로로), 김영선(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상근 (베드로)
소아청소년과
허리통증 인공관절 의학박사/원장 배상영 (미카엘라)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백두정형외과 T.053)425-5919

스피치 킴의 가장 핵심이다!
Speech.Kim 스피치킴 교육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 김민지(사바나)

미래필름
건축용 열차단 / 차폐필름
안전필름 / 방범필름 / 각종시트지
GT 나노원도우필름 대구경북 총판
홈페이지 : www.nwf.co.kr
박시연 (마테오), 서문숙 (로사리아)
전화문의 : 010-3374-3984
* 필름조성물에 의한 국제특허 2건, 국내특허 1건 보유

길안건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철, 단열시공
판넬, 창호, 철거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교육 | 모집

26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8.24~9.28(매주 토)

15:00~21:00(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2대리구 '거룩한 독서' 성서 모임

개강: 9.2(월) 10:30반 / 19:30반

장소: 수성성당 교육관

강사: 2대리구주교대리 박성대요한 신부

참가비: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2대리구 사무실, 743-7010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8.16(금)~18(일), 한티피정의집

내용: 현사·조배, 강의, 참회 예절,

면담 성사, 안수 / 신부: 하성호,

송재준, 현익현, 변재홍, 정기모

문의: (010)5493-1819

대구대교구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여름 캠프

기간: 8.5(월)~8(목), 3박 4일

장소: 경북 영천 산자연학교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초·중·고

문의: (054)338-0530

베트남어 예비자교리 · 혼인교리

일시: 주일 17:00 베트남미사 후

(신부님 직접 교리)

장소: 가톨릭근로사회관

문의: 253-1313

가톨릭근로사회관

8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저녁반: 요한복음, 탈출기

(화, 목 19:00~20:30)

낮반: 사도행전

(수, 금 10:00~12:00)

개강: 8.1(목), 8.2(금) 월 3만 원

문의: 253-1313 / (010)2578-5535

선교, 왜 못하는가? 선교세미나 · 미사

일시: 9.28(매주 토) 10:30~12:30

장소: 계산문화관 3층

대상: 하느님의 열정으로 선교 원하는 분

강사: 이관석 신부 외 다수 강사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프란치스코를 사랑하는 청년 모임

프란치스코 성인을 사랑하는 청년

미혼 남녀(32세 이하) 초대합니다(수시)

문의: 재속프란치스코영남지구형제회,

(010)3512-0914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보육교사/사회복지사/음악), 교회

음악(성가교실/지휘/반주), 음악 1:레슨,

교양·문화강좌, 전문자격/취업 과정 등

모집: 8.30(금)까지 / 개강: 9.2(월)부터

장소: 감삼동, 문의: 660-5556~7

채용 | 안내

한티순교성지 직원 채용

분야: 사무, 기획 1명, 관리직 2명

관리직은 성지의 조경과 농사의 책임

제출: 이력서, 자필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마감: 8.3(토)

문의: (054)975-5151

남산동 신학교 관리직원 채용

문의: (주)현대 TMS, 559-6661

(010)6515-3500

카리타스무지개사업단 팀장 채용

분야: 사회복지사 팀장 1명

(다문화가족, 사회적기업사업)

자격: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경력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621-2025 / 마감: 7.29(월)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http://dormitory.cu.ac.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미소나라 출장뷔페
 MISORARI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예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자격증 취득 전문 학원
북구음식나라조리학원
 한식조리사기능사반 복어조리기능사반
 양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재직자반
 일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계좌제반
 중식조리사기능사반 출장조리반
 053)958-7500 / 010-3817-6895
 대구시 북구 대현동 270-7 삼주빌딩 3층
 대표 프란치스코(서정발), 아네스(김복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전국최대 보험판매 전문법인
지에이코리아
 GLOBAL ASSET KOREA (주)참사랑지사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을 찾습니다!
 생,손보 22개사 제휴 - 대구,구미,경산 근무 가능
 대표 이남수(윤일요한) 010-2514-2306
 대구 삼덕동 진석타워 8층 053-720-3600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과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마리아유외과
 Maria Breast Clinic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김영표버섯명가
www.pogokim.com
 ·유기농버섯(표고·쌍황) 재배
 ·체 험 학 습(건강·교육) 농장
 ·버섯요리전문점(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산IC 방향 5Km 위치